

인터뷰의 요령 2



“언론인들은 언제나 모든 사실을 ‘온 더 레코드’로 인식해야 한다.” (John Chancellor, NBC 뉴스 해설위원)



“나는 ‘예’나 ‘아니오’로 답변할 수 있는
질문은 절대로 던지지 않는다.”

(Roger Mudd, PBS
‘맥네일/레러 뉴스 아워’ 인터뷰 담당자)



“인간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것은
매우 중요하다. 그런 점을 무시한다면
훌륭한 인터뷰가 될 수 없다.”

(Ken Auletta, 저널리스트 겸 저술가)





- 문:공주님, 사적인 질문입니다만, 결혼을 안하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? 혹시 이성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?
- 답: 관심이 없다구요? 알려드리지만, 지난 20년간 최소한 서른 세 명의 애인들을 사귀어 왔어요.
- 문: 세상에 (당황)
- 답: 제가 이처럼 솔직히 대답할 줄 몰랐죠? 언론학부에서는 현실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나 보죠?



- 문: 내일 비가 올까요?
- 답: 아닙니다.
- 문: 그럼 내일 날씨가 좋겠군요.
- 답: ‘좋겠다’는 의미에 따라서는 글썽요.
- 문: 그럼 맑을까요?
- 답: 아니오.
- 문: 그럼, 도대체 뭘니까?
- 답: 눈이 올 것입니다.
- 문: 그럼 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?
- 답: 당신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.



- 문: 경사님, 총을 쏘 보신 적이 있나요? 제 말은, 과녁 말고... 이를테면, 강도를 추격하다가, 또는 인질극 와중에서, 또는 제가 읽어본 많은 경찰관들처럼, 화나서 총 쏘기 보다는.. 다시 말해
- 답: 예, 저는...
- 문: 한가지...또...



- 문: 경사님, 근무 중 총을 쏘보신 적이 있습니까?
- 답: 예, 딱 한번 있습니다.
- 문: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?



Open-ended questions

- “자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”
- “커넬씨, 7번째 결혼 생활을 마치셨는데,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”
- “김 XX 대통령께서는 유 XX 의원의 당비 미납부와 관련해 당원으로서의 자격 박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”



Closed-ended questions

- “김 대통령께서는 국민당의 특검법 입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까?”
- “경사님께서 무슨 무기로 희생자를 사망케 했습니까?”
- “제독님, 전투함대가 다음에는 어디로 파견됩니까?”

때로는 편견 내재

- 교통사고 사망현장에서 목격자에게 다가가
- “피해자가 음주 운전을 했습니까?” :
 - 편견 뿐만 아닌 목격자가 모르는 사실도 대답하라 강요.
- 더욱 객관적인 질문은 “목격한 것에 대해 진술 좀 해 주시겠습니까?”



인터뷰어의 반응들

- 1. 수동형 질문

“음....그렇군요.”: 인터뷰 상대자가 보기에는 질문하는 사람이 흥미 없어보이나 사실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경우

- 2. 반응형

“정말입니까? 세상에”

- 3. 거울형(반사형)

“서른 세 명이라...”

정신질환자들과 상담할 때 유용



■ 4. 묵묵부답

계속하기를 바랄 때, 질문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줌.

■ 5. 발전형

“그 남자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? 예를 들어 왜 그렇게 많았고.”

“누가 가장 인상적이었고, 누가 가장 형편 없었는지도.”

■ 6. 명확형

“평균적으로 1년에 한명 반 꼴이군요. 보통 이들과 잠자리를 함께 했나요?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 안 적이 있습니까?”



■ 7. 분산형

“그러면서도 여성 평등주의운동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데요...이 두 가지가 모순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신지요?”

■ 8. 바꾸기

“괜찮으시다면 화제를 바꿔볼까 하는데. 르노아르의 그림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”

■ 9. 판단형

“맙소사, 당신 바람둥이군요.”



숫자 질문들

- 구체적인 수치는 호기심 자극
- 막연함은 지루
- 적절한 비교의 미 (열대 과일과 브릭스)



좋은 질문들

- 호기심
- 차별화
- 친근감
- 고의로 틀린 질문 (민감한 수치 확인)
- 애매한 대답엔 극단적 결론으로 유도



인터뷰 시 피해야 하는 질문들

- 너무나 당연한 감정 표현에 대한 질문들
 - 왜 달려요? (비만 특집)
 - 기분이 어때요? (우승 소감)
- 산발적 질문들 (질서와 통일감)
- 애매한 질문들
- 두 가지 질문들을 동시에



- 인터뷰 대상자의 실수는 다시 확인
- 일반인들의 반응 비추기
- 틈새 비집기 (타인이 언급하지 않았던 이야기들)



쓸수록 좋은 구절들

- “잠깐만, 그게 무슨 뜻인지요?”
- “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?”
- “왜 그런가요?”
- “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”



오프 더 레코드

- Off-the-record
- 자신이 취재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싶으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돼
- “오프 더 레코드로는 곤란하다. 다른 곳에서 취재하겠다.”



피해야 할 주제들 (공적 주제)

- 사생활
- 남녀 문제
- 모욕적인 질문